

## 한·그리스 비즈니스 포럼 연설

존경하는 디미트리스 다스칼로풀로스 그리스 산업연합회 회장,

요르고스 알로고스쿠피스 경제재정부 장관,

아사나스 라비다스 경협 위원장, 이희범 회장과 남상태 위원장,

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그리스를 방문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경제협력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나라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56년 전 한국전쟁 당시 1만 명이 넘는 그리스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186명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6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한국을 잊지 않고, 저를 누구보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 두 나라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1972년 당시 텅 빈 바닷가에 조선소 건립을 기획하고 있던 우리 기업을 믿고 대형 유조선 두 척을 발주해 준 분이 바로 그리스 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세계 제일의 조선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우정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있을 카라만리스 총리와의 회담도 주된 관심사는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운국인 그리스와 한국의 협력은 호혜적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리스에서 수입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체결한 해운협력협정과 오전에 열린 조선라운드테이블은 해운물류, 조선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의 건설시공 능력과 IT 기술력은 그리스에 추진하고 있는 항만 현대화와 운영 자동화 사업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관광협력협정도 관광산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 관광대국인 그리스로부터 선진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남해안 개발사업에도 에게 해 개발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경제인 여러분은 양국 간 교역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선박 수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는 11월에는 한국 구매사절단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리스 상품에 대한 수입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두 나라의 경제적 역량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

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논의하는 제3국 공동진출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발칸 지역의 유일한 EU 국가로서 이 지역의 협력을 선도해 온 그리스의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되면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인들은 협력의 파트너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맨주먹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뤄낸 가장 최근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손을 잡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놓지 않고,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는 데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더 큰 이익을 봅시다. 함께 손잡고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갑시다. 한국 정부도 최대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